

KMI 주간해운시장 포커스

발 간 일 2025년 12월 22일

감 수 이언경 해운물류·해사연구본부장

발 행 인 조정희 원장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주간뉴스

01

건화물선

04

컨테이너선

14

탱커선

16

중고선

18

주요 해운지표

23

건화물선

지난주 케이프선 운임은 14.0% 하락한 30,762달러/일을 기록

컨테이너선

지난주 '컨' 운임지수(SCFI)는 46p 상승한 1,553p를 기록

탱커선

유조선 운임지수(WS)는 전주 대비 11.6p 하락한 114.6p를 기록

황수진 해운산업연구실장 / zin@kmi.re.kr | 051-797-4635

류희영 전문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634

최영재 연구원 / cyj@kmi.re.kr | 051-797-4608

최건우 부연구위원 / ak8102@kmi.re.kr | 051-797-4638

김병주 전문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주간뉴스

머스크, 홍해 항로 운항 재개를 위한 움직임

- ▶ 머스크는 최근 6,500TEU급 선박을 바브 알만데브(Bab al-Mandeb) 해협으로 통과시키며 홍해 항로 복귀를 위한 시범 운행을 단행함
 - 머스크는 이번 조치가 전면적인 서비스 재개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보안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수에즈 운하 경유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시사함
 - 최근 CMA CGM이 내년 1월부터 인도-미 동부 항로의 수에즈 복귀를 예고하고 ONE과 에버그린이 슬롯 용선 형태로 시장 재진입을 타진하는 등 선사들의 홍해 항로 복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음
- ▶ 이러한 변화는 10월 휴전 이후 선박 공격이 중단되고 전쟁위험 보험료가 선가대비 0.5%에서 0.2% 수준으로 하락하며 운항 리스크가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화주들은 여전히 화물 보험 담보 제외 문제와 테러 위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홍해 경유 서비스 이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선사들이 화주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문가들은 선사들이 시범 운항을 통해 항로 안정성을 입증해야 하며, 향후 화물 및 선박 보험료의 추가적인 인하가 동반되어야만 본격적인 서비스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 <https://www.joc.com/article/maersk-takes-significant-step-toward-return-to-red-sea-transits-6138361>

최건우 부연구위원

051-797-4638, ak8102@kmi.re.kr

미 항만 당국, 혼잡 재발 방지를 위한 공급망 데이터 공유 확대 필요성 강조

- ▶ 미국 주요 항만 당국자들은 팬데믹 이후 선사 등 파트너 간 데이터 공유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영업기밀 문제로 인해 공유 범위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 과거 물류대란은 공급망 내 소통 부재와 90%를 상회하는 높은 장치율이 주원인이었으나, 현재 시애틀, 타코마 및 롱비치 등 주요 항만은 50~65%대의 안정적인 장치율 유지하고 있음
 - 특히 당시 항만 마비의 핵심 요인이었던 배후 창고 포화 문제가 완화되면서 현재는 계절성 물동량이 비교적 원활히 처리되는 등 항만 및 내륙 물류의 유동성이 개선된 상태임
- ▶ 미래 물동량 급증에 대비해 NWSA는 근거리 야드 확보와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찰스턴항은 터미널 고도화 작업을 통해 처리 능력을 강화함
 - 롱비치항은 Pier S를 임시 장치장으로 활용하고 Pier B 온독레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내륙 운송 효율성을 높이는 등 운영 효율화에 주력하고 있음
 - 뉴욕·뉴저지항 또한 추가 부지 확보가 제한적인 여건에서 터미널 운영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당국은 개별 주체 관점이 아닌 전체 공급망 차원의 시스템적 협력이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함

자료: <https://www.joc.com/article/more-data-sharing-crucial-to-avoiding-future-port-congestion-officials-6135162>

김병주 전문연구원

051-797-4628, bjkim17@kmi.re.kr



1. 주간뉴스

석탄, 중장기 수출 감소 전망

- ▶ 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TradeWinds)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30년까지 전체 석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건화물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였음
 - 국제에너지기구는 2025년 전체 석탄 수출은 전년 대비 약 4.8% 감소한 14억 7,000만 톤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으며, 2027년에는 14억 톤, 2030년에는 13억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음
 - 또한 국제에너지기구는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인도네시아의 2024년 석탄 수출량은 5억 5,500만톤에서 2030년에는 3억 6,8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이라 밝힘
- ▶ 트레이드윈즈는 해운시장조사기관 클락슨(Clarksons)이 국제에너지기구의 석탄 수출 감소 전망에 대해 항로 거리는 짧지만 물동량 규모가 커 건화물선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음
 -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석탄 수요는 정체 국면을 거친 이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생에너지·원자력·LNG 등의 확대로 석탄 발전 역시 2026년 이후 감소할 것이라 예상함
 -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 정책 선택, 에너지 시장 여건, 기상 변수 등이 전 세계 석탄 시장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력 수요 증가세 및 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함

자료: <https://www.tradewindsnews.com/bulkers/iea-forecasts-global-coal-exports-falling-through-2030-delivering-blow-to-bulker-sector/2-1-1919123>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jy@kmi.re.kr

대두, 중국 재고 누적에 따른 수요 구조 변화 전망

- ▶ 해운 중개사 인터모달(Intermodal)은 대두가 브라질-중국 항로와 미국-중국 항로를 중심으로 캄사르막스(Kamsarmax)선 시장 수요와 톤마일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언급함
 - 인터모달은 지속적인 미·중 무역 갈등, 남미 지역에서의 이례적인 풍작, 중국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재고라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전 세계 대두 교역의 톤마일 구조가 점진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 인터모달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전 세계 대두 소비가 중장기적으로는 재고 감소와 재고 대비 소비 비율 하락이 예상되지만, 수요의 총량보다는 수요의 지리적 분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 인터모달은 중국의 누적된 대두 재고로 인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물량의 일부가 2026년 1분기로 이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산 대두가 가격에 민감한 소규모 시장으로 분산될 수 있다고 전망함
 - 브라질·아르헨티나산 대두의 중국 수출 확대로 중국의 항만 대두 재고는 전년 대비 약 360만 톤 증가한 약 1,030만 톤이며, 분쇄업체 재고는 약 750만 톤으로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 인터모달은 중국 내 대두 재고 소진 국면이 지속되면 미국산 대두가 아시아·아프리카·중동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수프라막스 등의 소형선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자료: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dry-bulk-shipping-soybean-trade-gaining-market-share/>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jy@kmi.re.kr



1. 주간뉴스

LR2 선박, 원유운반선 시장 투입 둔화 전망

- ▶ 해운 및 에너지 시장조사기관 보텍사(Vortexa)는 2025년 하반기 들어 LR2 선박이 원유운반선 시장에 대거 투입됨에 따라 원유운반선 시장에 투입된 LR2 선박량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였음
 - 보텍사는 원유운반선 시장에 투입된 LR2 선박은 올해 초 대비 50척 이상 증가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대서양 지역의 아프라막스선의 수요 회복과 그리스 선주들의 러시아산 원유 운송 시장 이탈이 있음
 - 그러나 발틱 거래소(Baltic Exchange)에 따르면 최근 아프라막스선과 LR2 간 수익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 LR2 선박이 제품선 시장으로 복귀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에 다가서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 보텍사는 대서양 지역의 원유운반선 시장 수요를 지지하던 요인들이 약화되고, 동시에 제품선 시장의 펀더멘털이 개선되면서 LR2 선박의 원유운반선 시장 투입 현상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 보텍사에 따르면, 유럽이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을 줄이고 리비아 등 인접 지역에서 원유를 조달하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거리 대서양 항로 대신 지중해 및 북서유럽으로 원유운반선이 이동하고 있음
 - 또한 지난해에 비해 올해 중동 지역의 정유시설 정비 일정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점차 재가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춘절 연휴 대비 나프타 수요가 증가하면서 LR2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함

자료: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lr2s-in-the-dirty-market-how-long-will-the-shift-last/>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yj@kmi.re.kr

베네수엘라, 미국의 VLCC 나포 이후 원유 수출 급감

- ▶ 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TradeWinds)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운송하던 VLCC를 나포한 이후 추가 나포에 대한 우려로 원유운반선 입출항이 중단되면서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이 급감했다고 보도함
 - 해운 중개사 포텐 앤 파트너스(Poten & Partners)는 미국의 제재에도 베네수엘라가 약 90~100만 배럴/일 규모의 원유를 수출해왔으나, 수출이 중단되면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함
 - 국제 통신사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현재 약 1,100만 배럴의 원유 운송이 베네수엘라 해역에서 중단된 상태이며, 미국의 허가를 받은 석유 메이저 셰브론(Chevron)만이 원유를 반출하고 있음
- ▶ 트레이드윈즈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이 그림자 선대로 분류되는 VLCC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포텐 앤 파트너스는 비공식 운항이 축소될수록 제재를 준수하는 선박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함
 - 트레이드윈즈는 원유운반선 시장 참가자들이 나포 위험을 재검토함에 따라, 그 파급 효과로 베네수엘라산 원유분 아니라 이란 및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그림자 선대의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함
 - 투자은행 JP모건(JP Morgan)은 원유 공급 증가 속도가 수요 증가 속도를 상회하는 공급 과잉 국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며 국제유가가 상승함

자료: <https://www.tradewindsnews.com/tankers/venezuelan-tanker-exports-plunge-as-us-becomes-pirate-of-the-caribbean-/2-1-1916451>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yj@kmi.re.kr



2. 건화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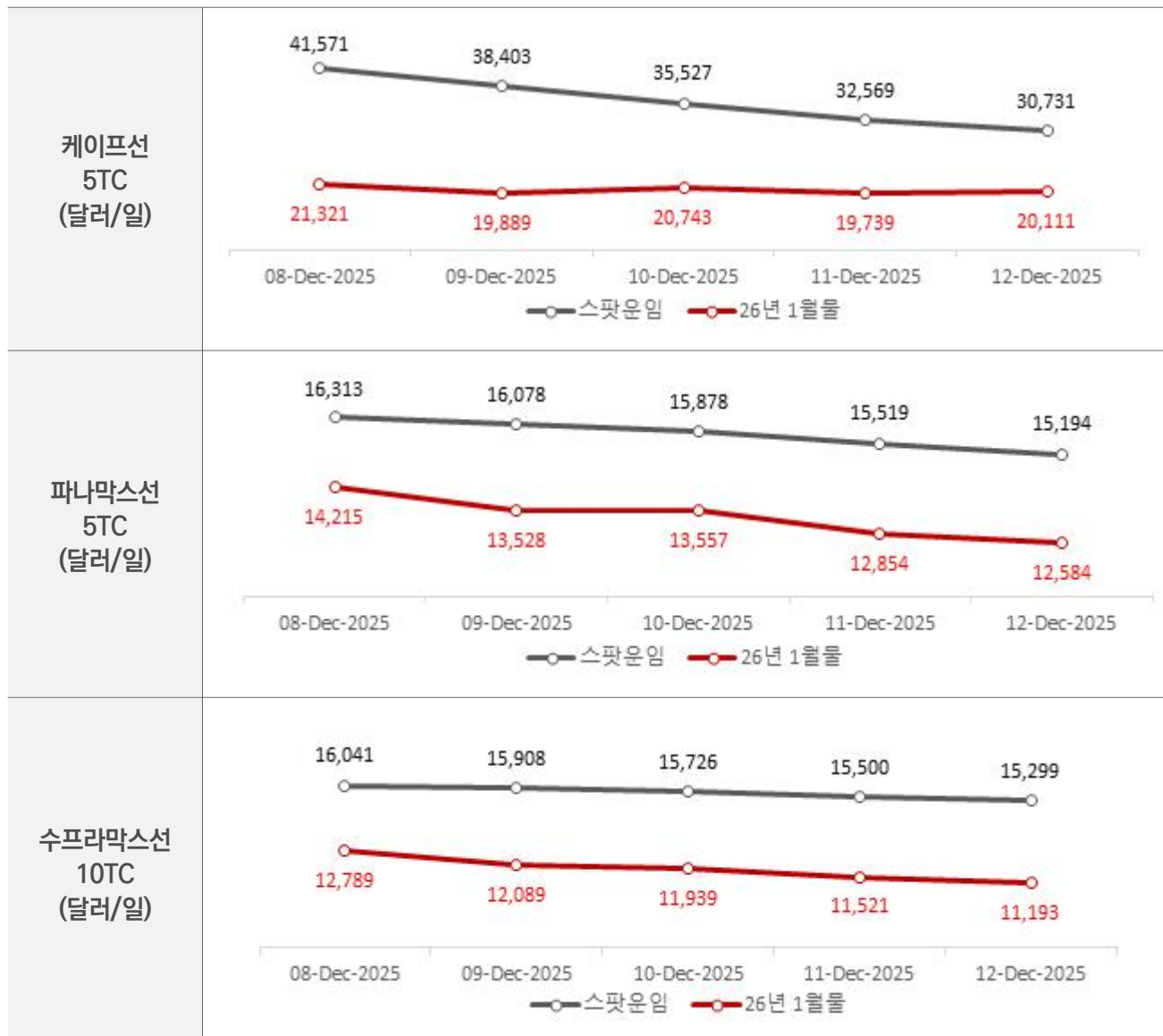
황수진 부연구위원 | zin@kmi.re.kr | 051-797-4635

1 주간평균운임

구분	12월 3주					
	주간평균운임	전주대비차이		2026년 1월물 FFA 주간평균가격	전주 대비 차이	
케이프선 5TC (달러/일)	30,762	▼ -4,998	-14.0 %	21,015	▲ 654	3.2 %
파나막스선 5TC (달러/일)	13,343	▼ -2,453	-15.5 %	11,875	▼ -1,473	-11.0 %
수프라막스선 10TC (달러/일)	14,354	▼ -1,341	-8.5 %	10,868	▼ -1,038	-8.7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 상승 ▼ 하락 -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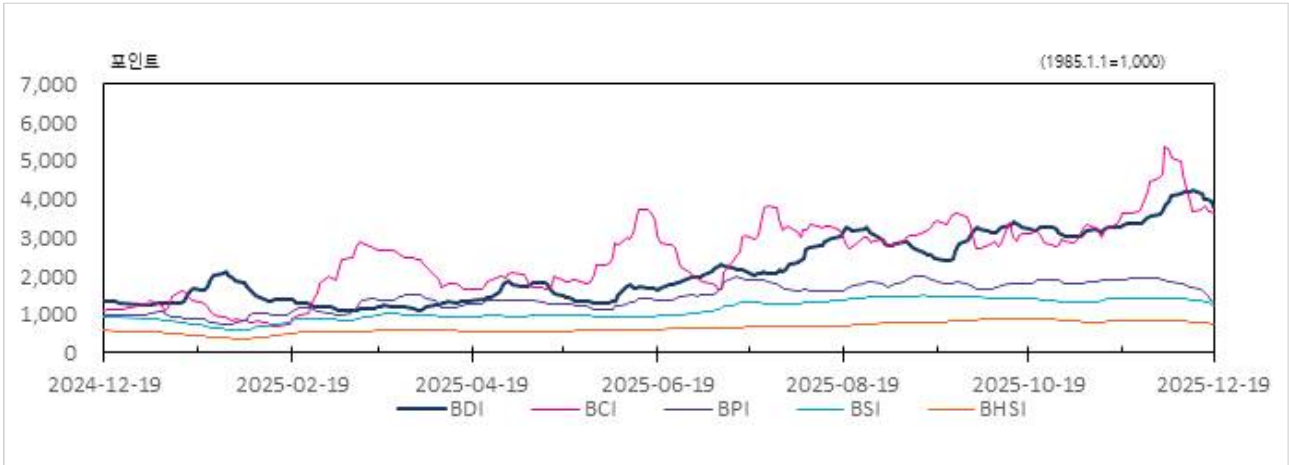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건화물선 운임지수



자료: Clarkson

건화물선 운임

(운임지수: 포인트, 선형별 운임: 달러/일, 1년 용선료: 달러/일, 선형별 운임 평가치: 달러/일)

		12월 3주	전주 대비	2024년			2023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건화물선 시장(현물) ¹⁾									
선형별 운임	운임지수 BDI	2,122	▼ -314	976	2,419	1,755	530	3,346	1,378
	케이프(5TC)	30,762	▼ -4,998	8,945	35,780	22,593	2,246	21,814	11,848
	파나마스(5TC)	13,343	▼ -2,453	8,616	20,757	14,099	7,277	16,669	12,276
	수프라막스(10TC)	14,354	▼ -1,341	9,637	16,441	13,601	6,874	14,703	10,928
	핸디(7TC)	13,892	▼ -932	10,197	14,537	12,660	7,763	12,703	10,317
1년 용선료	케이프	27,150	▼ -175	18,800	32,000	24,750	13,750	25,125	17,161
	파나마스	15,000	▼ -750	12,000	19,575	16,554	12,050	18,750	15,202
	수프라막스	15,000	▼ -500	13,250	18,500	16,737	12,438	18,625	15,131
	핸디	13,000	▼ -125	12,000	15,250	14,064	9,750	15,500	12,512
건화물선 시장(FFA)									
		2026년 1월물		2026년 1분기		2026년물		2027년물	
		12월 3주	전주 대비	12월 3주	전주 대비	12월 3주	전주 대비	12월 3주	전주 대비
선형별 운임 평가치	케이프(5TC)	21,015	▲ 654	19,177	▲ 262	23,767	▲ 84	22,649	▼ -40
	파나마스(5TC)	11,875	▼ -1,473	12,505	▼ -1,206	13,783	▼ -443	13,038	▼ -272
	수프라막스(10TC)	10,868	▼ -1,038	11,093	▼ -1,032	12,338	▼ -405	11,732	▼ -223
	핸디(7TC)	10,841	▼ -884	10,849	▼ -677	11,441	▼ -251	11,538	▼ -96

주: 운임지수, 선형별 운임, 1년 용선료는 해당 주 평균값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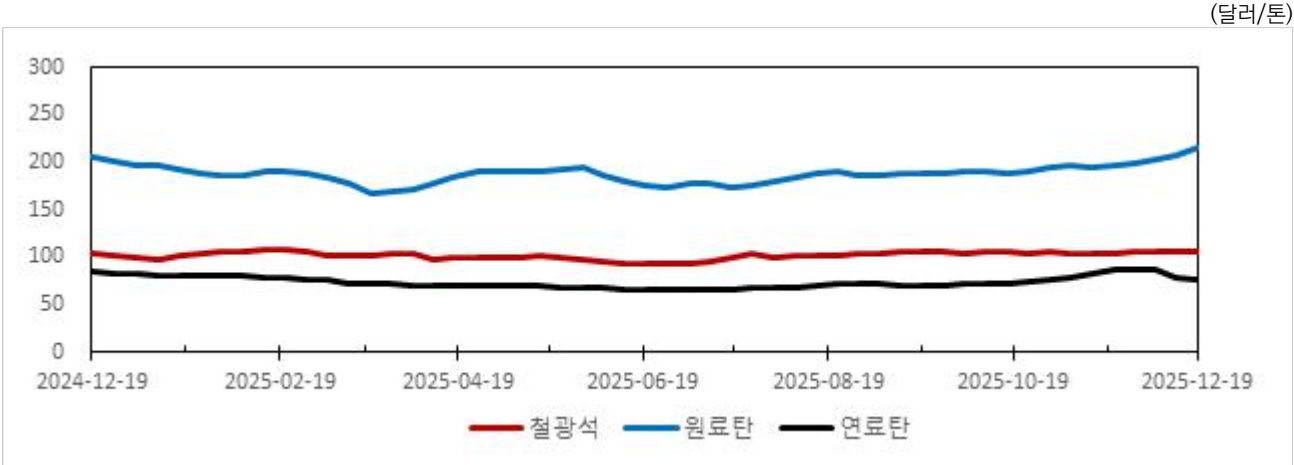
원자재 가격

(달러/톤)

구분	2025년		전주 대비 차이				2024년			
	12월 3주	전주 대비					12월 3주	연평균	최저	최고
철광석	105.9	105.0	▲ 0.9	0.9	%		103.6	109.7	91.2	142.6
원료탄	216.2	207.6	▲ 8.6	4.1	%		206.1	242.5	183.6	326.1
연료탄	75.6	79.1	▼ -3.5	-4.4	%		83.8	91.0	82.5	99.3
대두	389.1	400.0	▼ -10.9	-2.7	%		356.3	405.9	344.9	469.2
옥수수	173.6	171.5	▲ 2.1	1.2	%		174.2	167.4	145.2	1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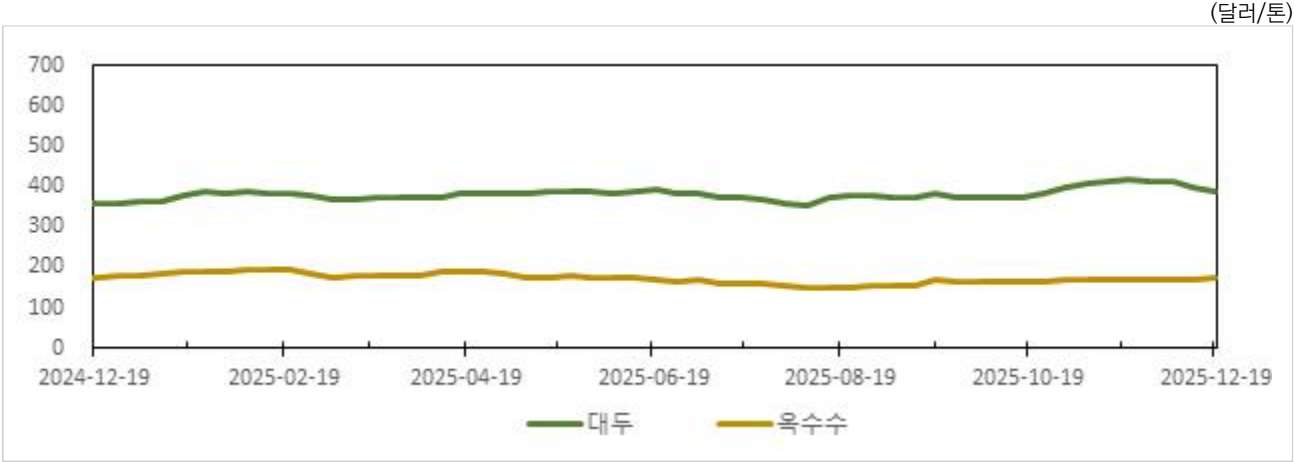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 상승 ▼ 하락 - 혼조

철광석 및 석탄 가격 추세(주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곡물 가격 추세(주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3 대형선 : 케이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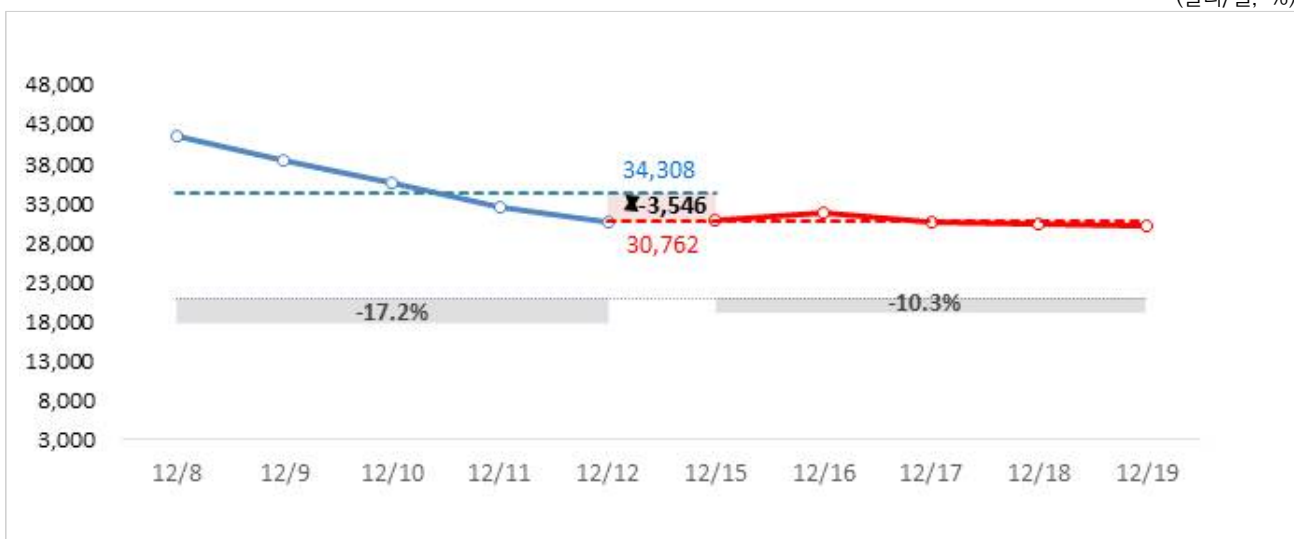
■ 케이프선 운임은 전주(12월 2주) 대비 14.0% 하락한 30,762달러/일 기록

(동향) 재고 비축 수요 소진에도 운임 강세

- 운임은 전주 대비 14.0%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3만 달러대를 유지하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하락은 연후를 앞둔 재고 비축 수요가 일단락됨에 따라 단기 수요가 약화된 결과로 분석됨
- 한편 호주 광산업체가 12월 말 이전 출하를 지속함에 따라 단기 선박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 등 장거리 항로의 물동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톤마일 수요가 운임 수준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FFA 12월물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달러/일, %)



자료: Clarkson

케이프선 운임

(BC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12월 3주	12월 2주	전주대비차이	
BCI		3,709	4,312	▼ -603	-14.0%
스팟운임(5TC)		30,762	35,760	▼ -4,998	-14.0%
용선료	6개월	29,350	29,850	▼ -500	-1.7%
	1년	27,150	27,325	▼ -175	-0.6%
	5년	22,250	22,363	▼ -113	-0.5%
FFA	'26년 1월물	21,015	20,361	▲ 654	3.2%
	'26년 1분기물	19,177	18,915	▲ 262	1.4%
	'26년	23,767	23,682	▲ 84	0.4%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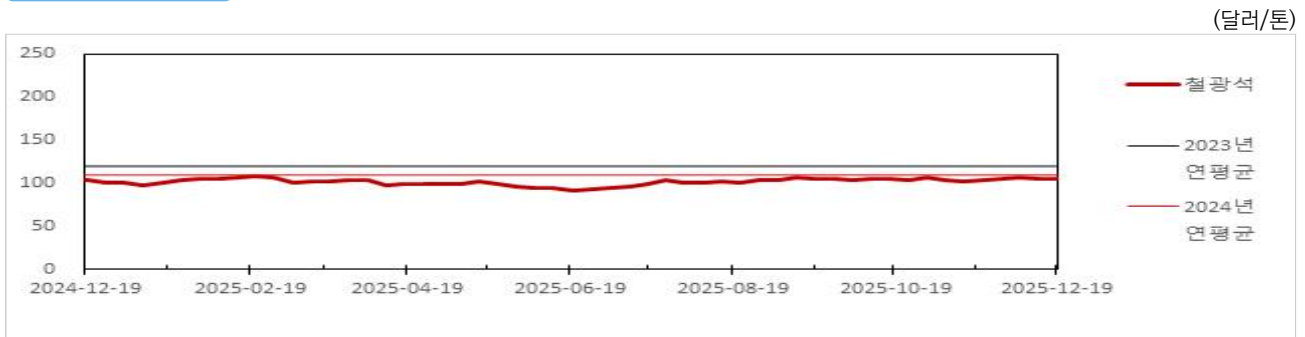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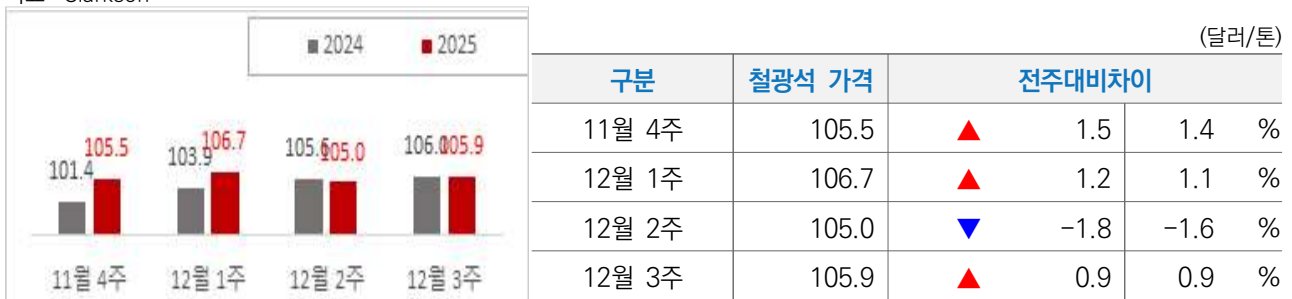
3 케이프선

■ 철광석 가격 : 전주 대비 0.9% 상승한 105.9달러/톤 기록

철광석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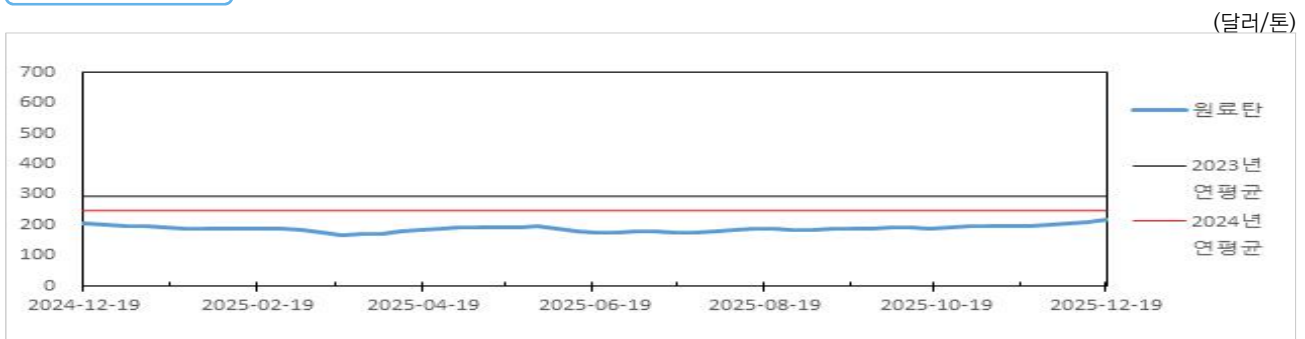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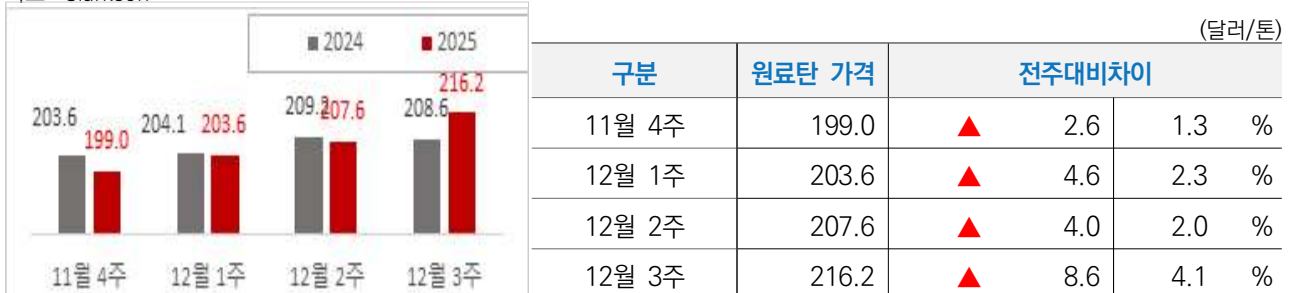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 원료탄 가격 : 전주 대비 4.1% 상승한 216.2달러/톤 기록

원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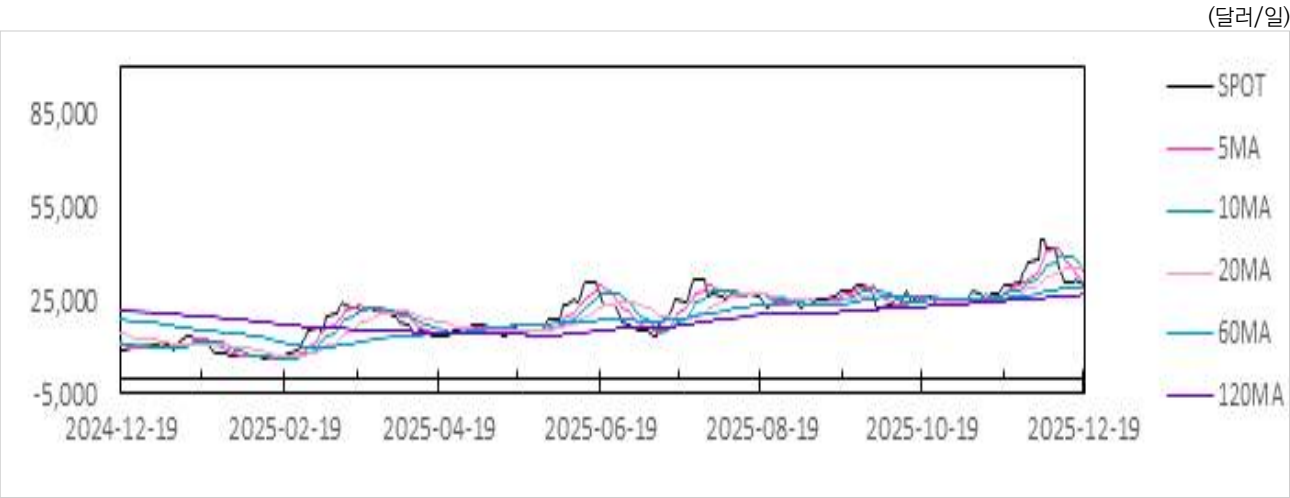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3 케이프선

이동평균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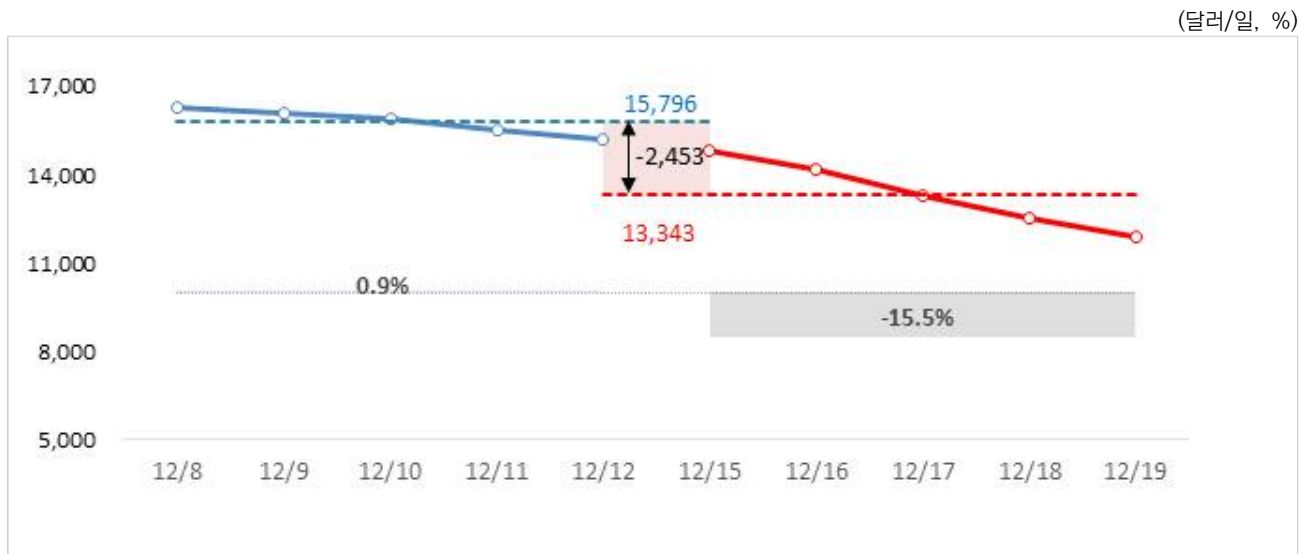
3 중소형선 : 파나마스선·수프라막스선

I 전주 대비 15.5% 하락한 13,343달러/일 기록

(동향) 인도 석탄 수출 허용, 인도네시아 니켈, 석탄 생산 목표치 하향

- 인도 정부는 국내 석탄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전력 수요 증가 속도 둔화로 인해 발전소의 석탄 재고가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석탄 수출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됨
- 인도네시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는 2026년 니켈과 석탄의 생산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는 과잉 공급으로 인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인도네시아의 2025년 석탄 생산량은 약 7억 5,000만 톤으로 이는 8억 3,600만 톤에 달했던 전년도 생산량보다 감소한 수치임. 2026년에는 석탄 생산량이 7억 톤 미만으로 추가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됨. 또한 니켈의 경우 2026년 생산량이 올해 기준 3억 7,900만 톤에서 약 2억 5,000만 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라고 언급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파나마스선 운임

(BP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12월 3주	12월 2주	전주대비차이		
BPI	1,483	1,755	▼	-272	-15.5 %
스팟운임(5TC)	13,343	15,796	▼	-2,453	-15.5 %
용선료	6개월	16,000	▼	-750	-4.5 %
	1년	15,000	▼	-750	-4.8 %
	5년	13,625	▼	-500	-3.5 %
FFA	'26년 1월물	11,875	▼	-1,473	-11.0 %
	'26년 1분기물	12,505	▼	-1,206	-8.8 %
	'26년	13,783	▼	-443	-3.1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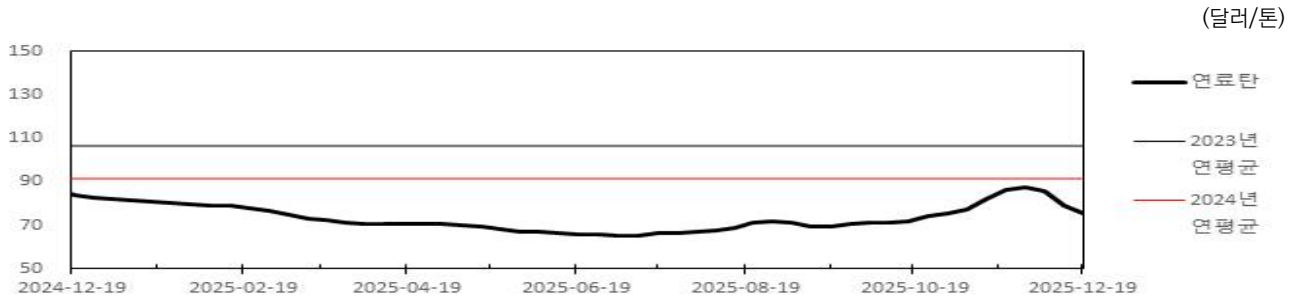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파나막스선

연료탄 가격 : 전주 대비 4.4% 하락한 75.6달러/톤 기록

연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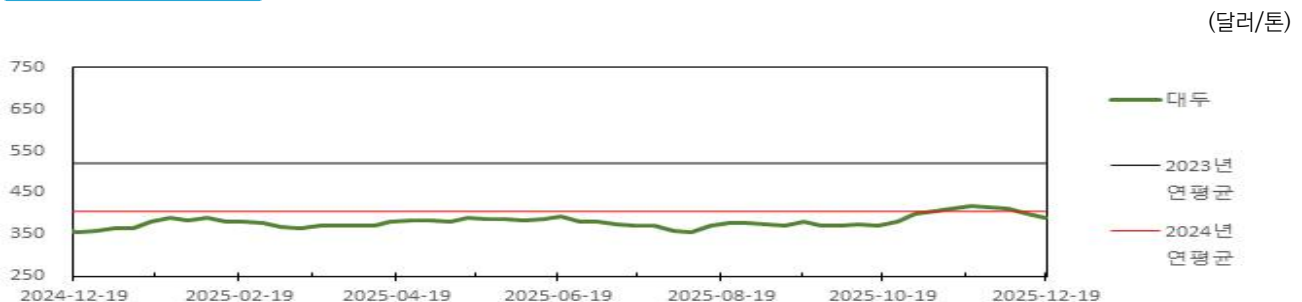


구분	연료탄가격	전주대비차이		
11월 4주	87.3	▲ 1.1	1.3	%
12월 1주	85.7	▼ -1.6	-1.8	%
12월 2주	79.1	▼ -6.6	-7.7	%
12월 3주	75.6	▼ -3.5	-4.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대두 가격 : 전주 대비 2.7% 하락한 389.1달러/톤 기록

대두 가격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구분	대두 가격	전주대비차이		
11월 4주	414.9	▼ -3.5	-0.8	%
12월 1주	411.0	▼ -3.9	-0.9	%
12월 2주	400.0	▼ -11.1	-2.7	%
12월 3주	389.1	▼ -10.9	-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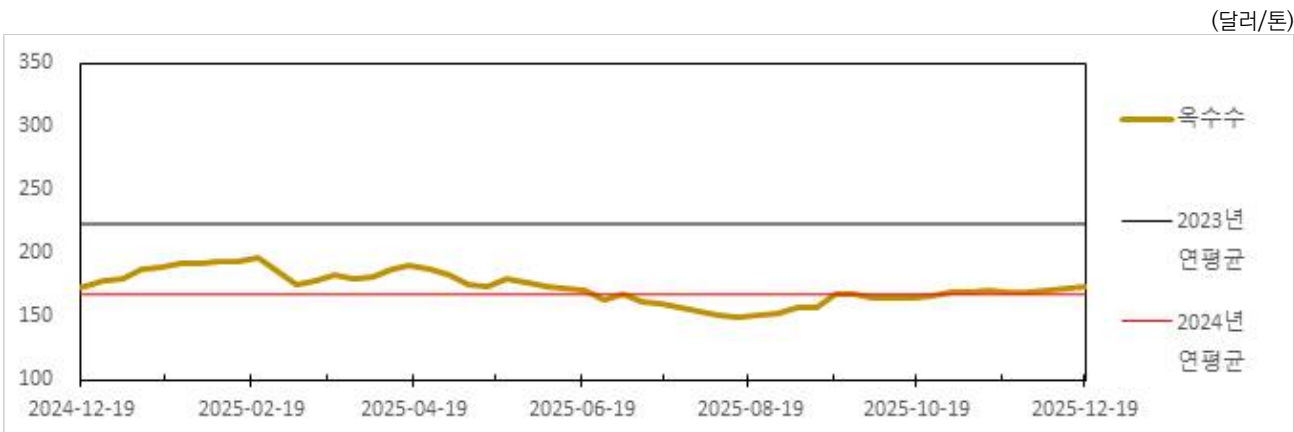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3 파나막스선

옥수수 가격 : 전주 대비 1.2% 상승한 173.6달러/톤 기록

옥수수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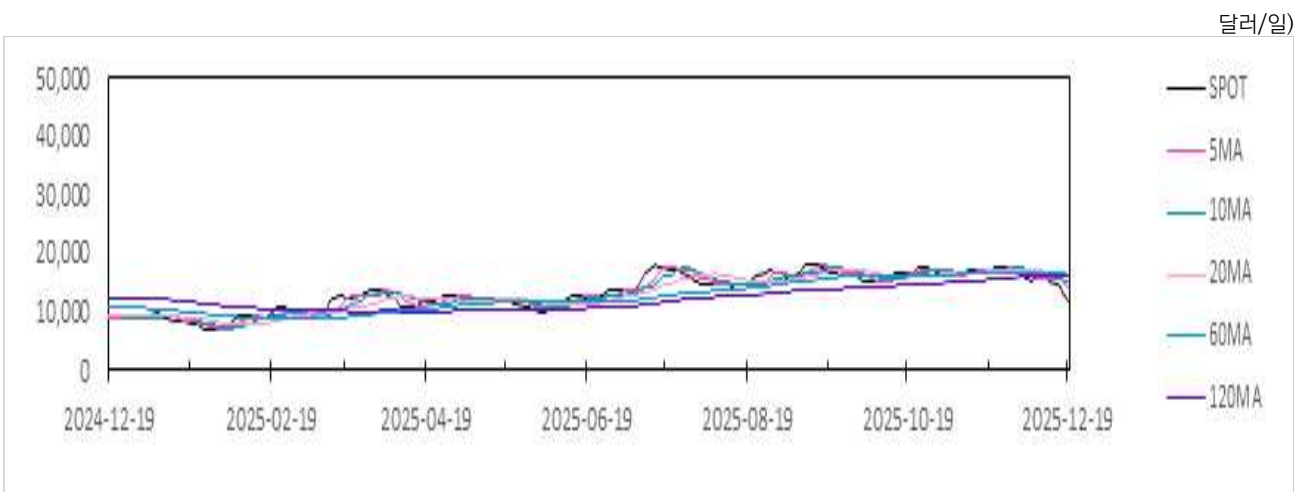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달러/톤)

구분	옥수수 가격	전주대비차이		
11월 4주	168.7	▼ -0.8	-0.5 %	
12월 1주	171.4	▲ 2.6	1.6 %	
12월 2주	171.5	▲ 0.1	0.1 %	
12월 3주	173.6	▲ 2.1	1.2 %	

3 파나막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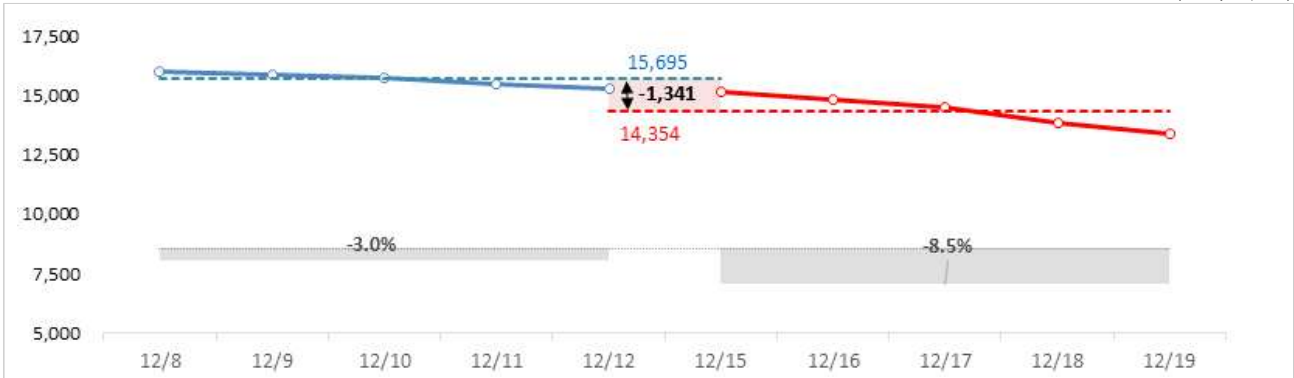


3 수프라막스선

전주 대비 8.5% 하락한 14,354달러/일 기록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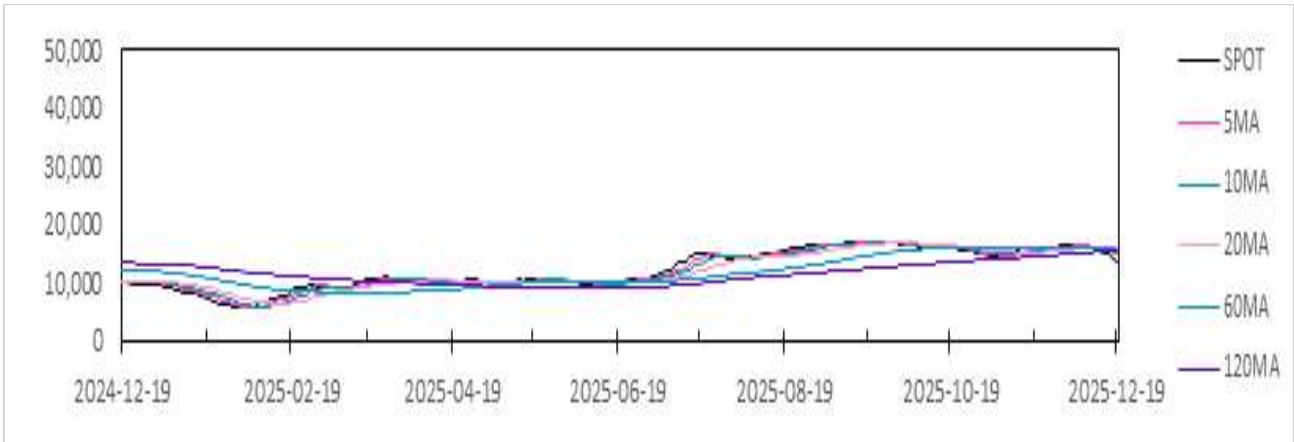
(달러/일, %)



자료: Clarkson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수프라막스선 운임

(BS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12월 3주	12월 2주	전주대비차이	
BSI		1,297	1,402	▼ -106	-7.5 %
스팟운임(10TC)		14,354	15,695	▼ -1,341	-8.5 %
용선료	6개월	15,750	16,000	▼ -250	-1.6 %
	1년	15,000	15,500	▼ -500	-3.2 %
	5년	14,250	14,250	-	- %
FFA	'26년 1월물	10,868	11,906	▼ -1,038	-8.7 %
	'26년 1분기물	11,093	12,125	▼ -1,032	-8.5 %
	'26년	12,338	12,742	▼ -405	-3.2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컨테이너선

김병주 전문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동향분석

I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 전주 대비 46p 상승한 1,553p를 기록

(운임)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유럽 항로 보합세에도 북미 항로 운임 급등으로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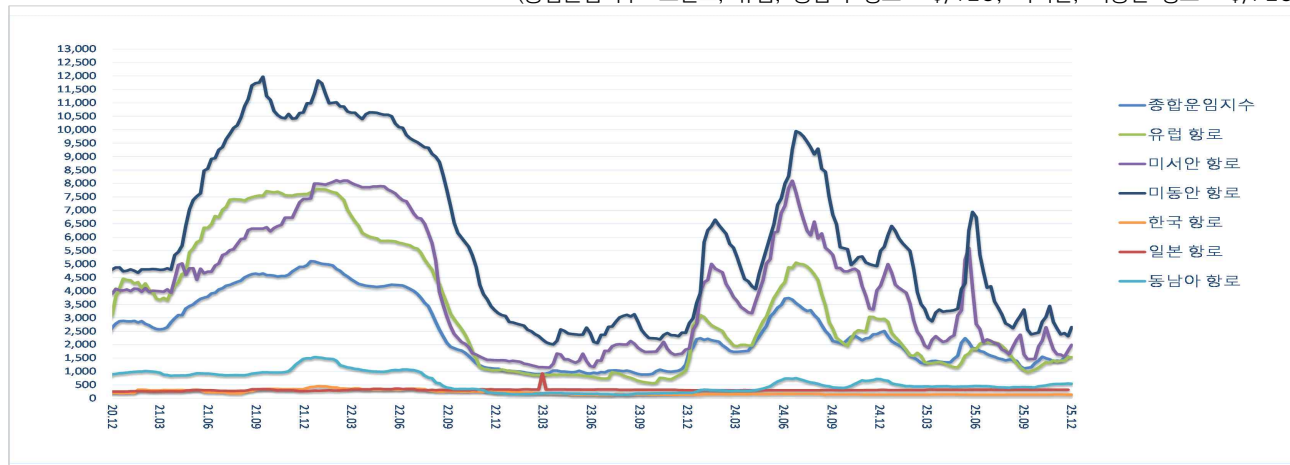
- 유럽 항로는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북미 항로는 일괄운임인상(GRI) 효과로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함

(현황)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에 따른 수급 불균형 심화 및 구조적 시황 약세 우려

- 2026년 신조 인도량은 올해 대비 감소하겠으나 누적된 공급 과잉으로 운임 하락과 대규모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선주들의 발주 조정이 없다면 향후 인도량 급증으로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큼(JOC, Sea-web)
- 2026년 글로벌 물동량 성장률은 2.5~3.5% 수준에 그쳐 노후선 해체만이 시장 안정화의 대안이 될 것이며, 홍해 사태 완화로 수에즈 운항 재개 시 실질 공급량 증가가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BIMCO, Alphaliner)

컨테이너 운임지수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컨테이너 운임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한국, 일본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12월 3주	전주대비	2025년			2024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컨테이너선 시장										
운임	종합운임지수	SCFI	1,553	46	1,115	2,505	1,580	1,731	3,734	2,506
		유럽항로	1,533	-5	971	2,851	1,584	1,943	5,051	3,132
		미서안항로	1,992	212	1,460	5,606	2,558	2,775	8,103	4,987
		미동안항로	2,846	194	2,315	6,939	3,737	3,931	9,945	6,463
		한국항로	138	-1	135	148	139	138	172	153
		일본항로	321	0	308	327	319	297	316	303
		동남아항로	542	-14	398	655	463	259	753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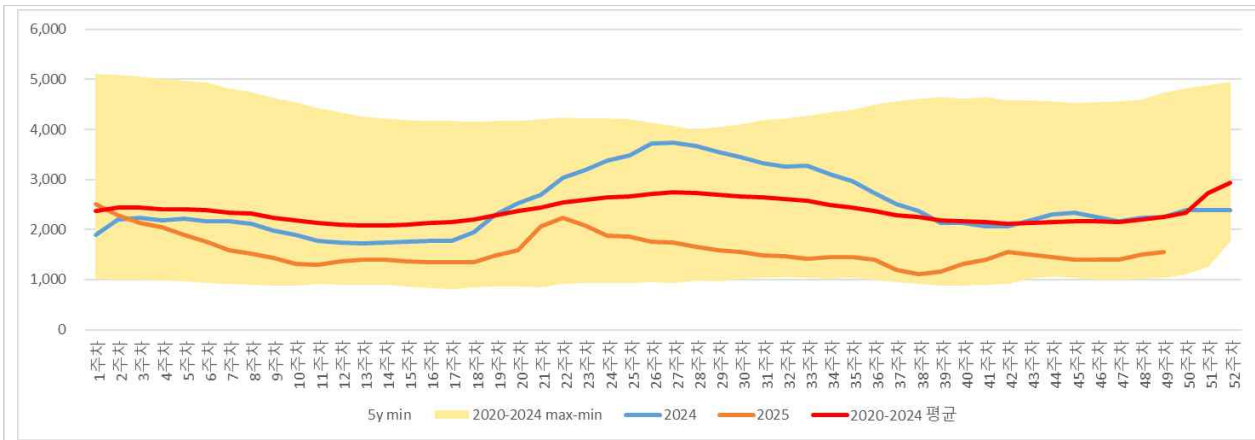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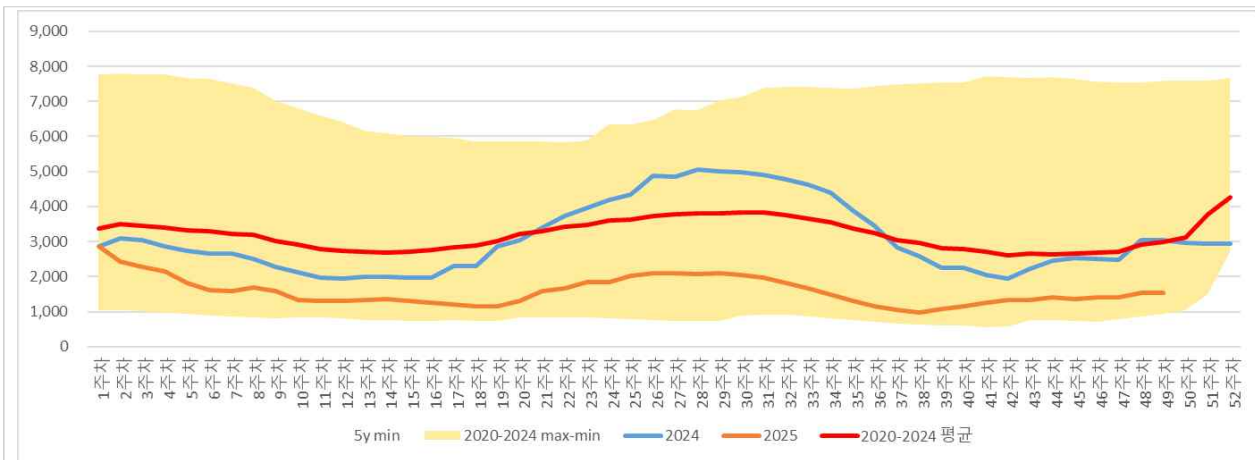
2 운임전망

| 12월 3주('25.12.22~'25.1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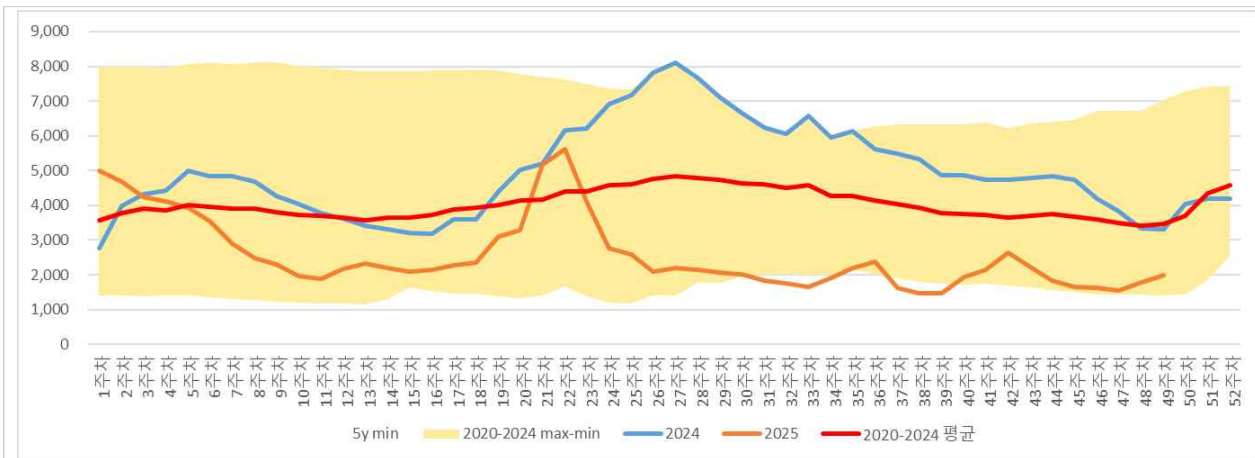
SCFI 지수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유럽운임은 보합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북미운임(서부)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4. 탱커선

류희영 전문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643

1 유조선-동향분석

■ 유조선 WS(VLCC World Scale) : 금주 유조선 WS는 전주 대비 11.6p 하락한 114.6을 기록함

(운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하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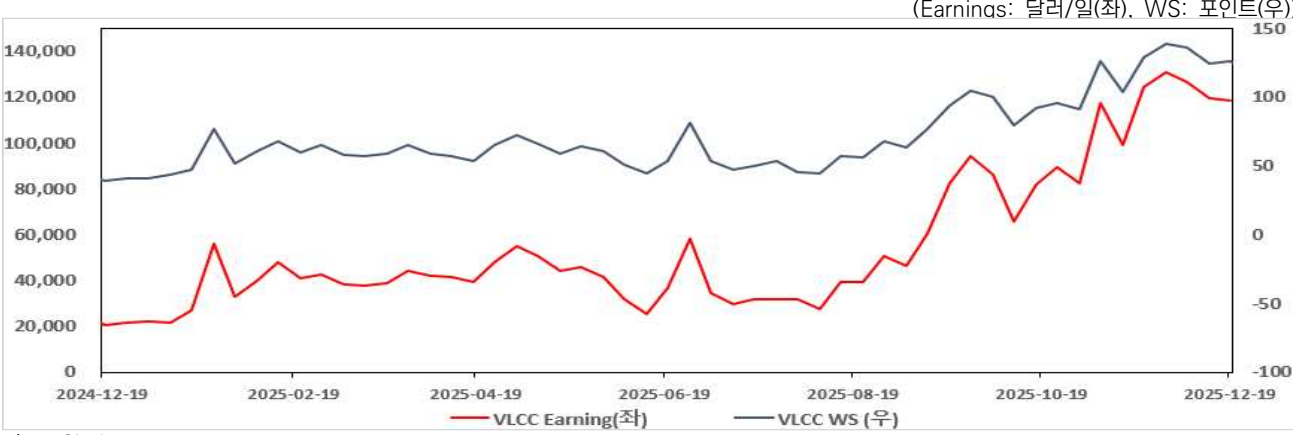
(달러/톤)

구분	12월 3주(WS)	전주 대비 차이		
중동-중국 항로(TD3C)	114.6	▼	11.6	9.2 %
Ras Tanura(중동) - Loop(미 걸프만) VLCC 280K	57.5	▼	7.5	11.5 %
Ras Tanura(중동) - Ningbo(중국) VLCC 270K	125.0	▼	9.2	11.5 %
Bonny Off(서아프리카) - Ningbo(중국) VLCC 260K	112.5	▼	21.5	17.2 %

(동향) 급등 이후 조정 국면 진입, 연말 연휴 앞두고 관망세 확대에 따른 상승세 둔화

- VLCC 시장은 단기 급등에 따른 화주 저항과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상승세가 조정 국면에 진입함. 크리스마스 및 연말 연휴를 앞두고 시장 참여가 위축되면서 성악 활동 둔화와 함께 단기적으로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OPEC은 12월 월간석유시장보고서를 통해 2026년 세계 석유 수요가 올해 대비 140만 b/d 증가한 1억 652만 b/d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2025년 석유 수요 증가폭이 2024년 대비 130만 b/d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평가됨

VLCC 중동-중국(TD3C) 운임 및 지수



자료: Clarkson

유조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12월 3주	전주대비	2025년			2024년		
유조선 시장(현물)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중동-중국	운임지수	115	-12	43	138	73	40	80	57
항로(TD3C)	평균 수익	117,061	-4,934	20,781	139,384	56,388	17,598	74,778	20,034
VLCC	1년 용선료	58,000	0	35,250	58,000	44,701	37,250	48,500	45,635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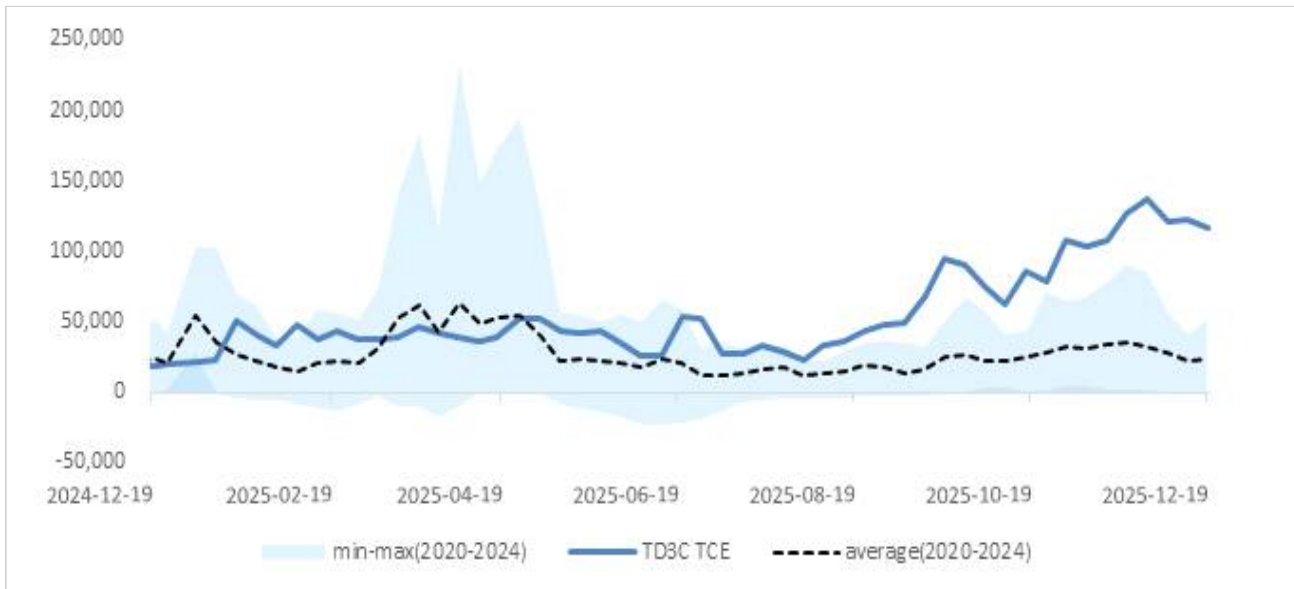


2 유조선-기술분석

단기 고점 형성 이후 상승 모멘텀이 둔화되며, 점진적인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VLCC 중동-중국(TD3C) TCE(Time Charter Equivalent)

(달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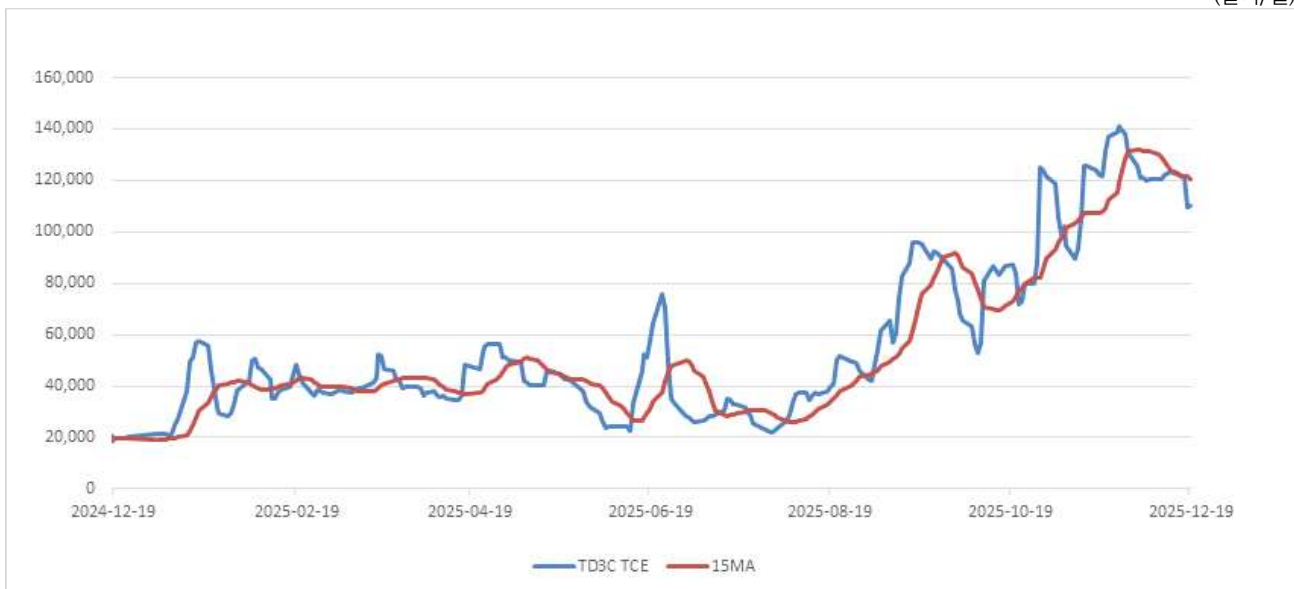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최근 고점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

VLCC 중동-중국(TD3C) 이동평균(MA)

(달러/일)



자료: Clarkson



5. 중고선

1 동향분석

건화물 중고선가 지수는 35.4p로 전주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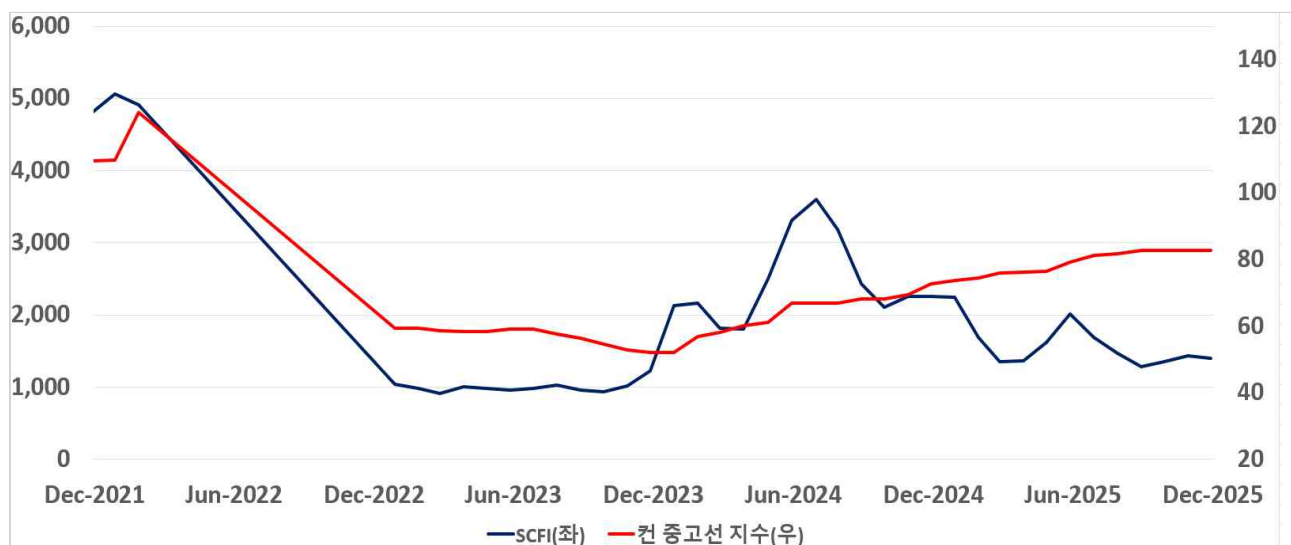
건화물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주: 건화물선 중고선지수는 선형별 10년 중고선가를 가중평균하여 계산되었음
자료: Clarkson

컨테이너 중고선가 지수는 82.6p로 전월과 동일함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자료: Clarkson



2 거래실적

('25.12.01~'25.12.22)

I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 중고선 55건 거래 발생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Offshore	BGP Honor	2024	5,438	HP	2025-12-18		Unknown	Middle Eastern interests
Container	Boat Blessing	1997	1,684	TEU	2025-12-18	8.60	HK Zhoufu Shipping	Undisclosed interests
Offshore	Fog 11	2015	3,033	DWT	2025-12-18		First Oil & Gas	Middle Eastern interests
TankChem	Nord Superior	2015	49,600	DWT	2025-12-18	33.00	Norden A/S	Undisclosed interests
Offshore	Norwind Helm	2024	87	Accommodation	2025-12-18		Norwind Offshore	Clients of Danish Navy
Bulk	Wariya Naree	2011	53,840	DWT	2025-12-17	9.85	Precious Shipping	Undisclosed interests
Tanker	STI Gallantry*	2016	109,999	DWT	2025-12-17	52.30	Scorpio Tankers	Undisclosed interests
Tanker	STI Goal*	2016	109,999	DWT	2025-12-17	52.30	Scorpio Tankers	Undisclosed interests
Offshore	Donnelly Tide	2004	8,076	HP	2025-12-16		Tidewater Marine	Clients of Aleki Oil
Offshore	Velesto Naga 3	2010	350	Water Depth	2025-12-16	63.00	Velesto Drilling	Clients of Indodrill
Container	Mukaddes Kalkavan*	2008	1,878	TEU	2025-12-16	34.00	Kasif Kalkavan Group	Clients of MSC
Container	Nevzat Kalkavan*	2011	1,878	TEU	2025-12-16		Kasif Kalkavan Group	Clients of MSC
Offshore	Breeze Enabler*	2022	120	Accommodation	2025-12-16		Edda Wind	Clients of ESVAGT
Offshore	Brint Enabler*	2022	60	Accommodation	2025-12-16		Edda Wind	Clients of ESVAGT
Container	AS Clementina	2006	2,824	TEU	2025-12-15	24.00	MPC Container Ships	Undisclosed interests
Offshore	Azuma	2012	60	LOA	2025-12-15		Thor P/F	Clients of Aureus Marine



Offshore	BW Maromba B	1998	20,000	bopd	2025-12-15	274.00	BW Maromba	Clients of Minsheng Leasing
Gas C'rier	Eco Invictus	2014	5,023	cu.m.	2025-12-12		StealthGas	Undisclosed interests
Offshore	Normand Clipper	2001	128	LOA	2025-12-12		Solstad Maritime	Clients of Global Marine Group
Bulk	Atlantic Lion	2020	209,205	DWT	2025-12-11	73.75	Sinokor Merchant	Undisclosed interests
Cruise	Caledonian Sky	1991	110	Berths	2025-12-11		Nautical Compass SA	Clients of Kalama Shipping
Bulk	IVS Windsor	2016	60,279	DWT	2025-12-11	25.00	Island View Shpg.	Clients of Oceanstar Management
Pass.	Mao Sheng 2	2003		Passengers	2025-12-11	0.13	Shengsi Shipping	Chinese interests
Dry Genl	Hong Feng 2388	2007			2025-12-10	0.10	Guangxi Hongfeng	Chinese interests
Dry MPP	Xia Men Ze Shun*	2014	27,216	DWT	2025-12-10		Xiamen ITG	Undisclosed interests
Dry MPP	Xia Men Ze An*	2013	27,268	DWT	2025-12-10		Xiamen ITG	Undisclosed interests
Dry Genl	En Ci 1	2008	4,580	DWT	2025-12-09	0.42	Quanqiang Marine	Chinese interests
Dry Genl	Gui Ping Hong Yuan 3999	2010			2025-12-09	0.11	Unknown Chinese	Chinese interests
Dry Genl	San Zhou 666	2007			2025-12-09	0.27	Jianli Sanzhou	Chinese interests
Dry Genl	San Zhou Xiang Rui Hao	2009			2025-12-09	0.37	Jianli Sanzhou	Chinese interests
Tug	Tong Heng Tuo 1	1996	2,340	HP	2025-12-09	0.11	Unknown Chinese	Chinese interests
Offshore	Noble Resolve	2009	350	Water Depth	2025-12-08	64.00	Noble Corp	Clients of Ocean Oilfield Serv
Offshore	Voyager Explorer	2005	68	LOA	2025-12-08		Aesen	Clients of PT Taka Geodrill
Offshore	Noble Mick O'Brien*	2013	400	Water Depth	2025-12-08	360.00	Noble Corp	Clients of Borr Drilling
Offshore	Noble Regina Allen*	2013	400	Water Depth	2025-12-08		Noble Corp	Clients of Borr Drilling



Offshore	Noble Resilient*	2008	350	Water Depth	2025-12-08		Noble Corp	Clients of Borr Drilling
Offshore	Noble Resolute*	2008	350	Water Depth	2025-12-08		Noble Corp	Clients of Borr Drilling
Offshore	Noble Tom Prosser*	2014	400	Water Depth	2025-12-08		Noble Corp	Clients of Borr Drilling
Dry Genl	Hai Tong 8008	2009			2025-12-07	0.11	Unknown Chinese	Chinese interests
Pass./Car	Athara*	2003	2,700	Passengers	2025-12-04	268.82	Compagnia Italiana	Undisclosed interests
Pass./Car	Janas*	2002	2,700	Passengers	2025-12-04		Compagnia Italiana	Undisclosed interests
Pass./Car	Moby Aki*	2005	2,080	Passengers	2025-12-04		Moby Lines	Undisclosed interests
Pass./Car	Moby Ale Due*	2001	2,700	Passengers	2025-12-04		Compagnia Italiana	Undisclosed interests
Pass./Car	Moby Wonder*	2001	1,880	Passengers	2025-12-04		Moby Lines	Undisclosed interests
Dry Genl	Gui Gang Yu Hang 005	2022			2025-12-03	0.87	Unknown Chinese	Chinese interests
Offshore	Petrojarl I	1986	46,000	bopd	2025-12-03	15.00	Amplus Energy	Clients of Finder Energy
Dry Genl	Gui Gang Hong Xing 98	2025			2025-12-02	0.72	Unknown Chinese	Chinese interests
Bulk	Jin Bi	2012	56,361	DWT	2025-12-02	14.40	Jinhui Shipping	Clients of Xing Le Investments
TankChem	VS Lara	2006	11,336	DWT	2025-12-02	6.00	Valloebby Shipping	Undisclosed interests
Bulk	Ince Kastamonu	2010	56,925	DWT	2025-12-01	12.80	Ince Denizcilik	Undisclosed interests
Bulk	Ioanna D	2012	34,815	DWT	2025-12-01	10.50	Goldenport Shipmgmt	Undisclosed interests
Bulk	Key Frontier	2011	80,679	DWT	2025-12-01	18.70	Aquarian Shell Mar.	Undisclosed interests
Container	Cypress*	2011	8,586	TEU	2025-12-01	90.00	Oceonix Services Ltd	Clients of Global Ship Lease
Container	Koi*	2011	8,586	TEU	2025-12-01		Oceonix Services Ltd	Clients of Global Ship Lease



중고선

Container	Lotus A*	2010	8,586	TEU	2025-12-01		Oceanix Services Ltd	Clients of Global Ship Lease
-----------	----------	------	-------	-----	------------	--	-------------------------	------------------------------------



6. 주요 해운지표

(2025.12.22. 기준)

주요 해운지표 추이		금주	전주 대비	12월 평균	2025년			2024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종고선가 (\$ Million)										
건화물선(5년)	Panamax	-	-	-	-	-	-	-	-	-
유조선(5년)	VLCC	120	2	119	112	120	116	106	116	114
컨테이너선(10년)	Sub-Panamax	37	0	37	33	37	36	15	31	25

자료: Clarkson

신조선가 (\$ Million)										
건화물선	Panamax	-	-	-	-	-	-	35	37	36
유조선	VLCC	128	0	128	125	129	126	128	131	129
컨테이너선	Sub-Panamax	45	0	45	44	45	45	41	44	42

자료: Clarkson

연료유 (\$/Tonne)										
380 CST	Rotterdam	336	-11	347	336	493	423	407	522	471
	Singapore	350	2	350	348	514	433	439	536	485
	Korea	374	0	377	374	530	460	475	563	515
	Hong Kong	369	3	369	366	522	451	456	568	500
VLSFO	Rotterdam	386	-13	396	386	553	478	502	615	555
	Singapore	424	-5	430	424	604	509	548	657	610
	Hong Kong	439	-5	446	439	604	519	568	680	620

자료: Clarkson

주요 원자재가 (\$)										
철광석 (\$/Tonne)	국제價	-	-	-	-	-	-	-	-	-
	중국産				-			-		
연료탄 (\$/Tonne)	국제價				-			-		
	중국産				-			-		
원료탄 (\$/Tonne)	호주産	-	-	-	-	-	-	-	-	-
	내륙(몽골)	-	-	-	-	-	-	-	-	-
	중국産				-			-		
곡물 (센트/부셸)	대두(국제)	1,049	-28	1,089	536	1,157	1,034	952	1,277	1,100
	밀(국제)	510	-19	527	497	618	539	524	700	578

자료: mysteel, CBOT

세계 경제권역별 교역액 (\$ Million)										
		9월	10월	11월	2024년 합계	2023년 합계	2022년 합계	2021년 합계		
ASEAN	수출	11,058	9,348	10,437	114,011	109,123	124,889	108,826		
	수입	7,192	7,069	6,512	78,828	78,033	82,529	67,705		
NAFTA	수출	12,236	10,416	12,139	151,717	136,353	130,259	113,907		
	수입	7,368	7,551	7,205	86,499	85,097	98,901	87,472		
EU	수출	7,912	5,676	5,952	74,722	74,147	74,413	69,576		
	수입	7,243	5,457	6,024	69,321	73,011	73,966	71,740		
BRICs	수출	14,405	16,311	14,372	162,194	154,128	187,108	194,151		
	수입	15,484	13,406	13,672	163,110	168,691	189,991	173,284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음
2.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예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개발 중인 분석모델의 예측결과로서 제공되는 내용임. 향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모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임
3. 인공지능 분석을 포함한 본 보고서의 예측결과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 손해 또는 기타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이 자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정보 이용자는 위에 언급된 모든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